

바이든 “中 대북영향력 사용해야” vs 시진핑 “핵심이익 위협 불허”

정상회담서 美권력전환기 한반도 해법 놓고 미묘한 신경전 바이든 “北 도발 가능성 ↑”...시진핑 “한반도 충돌 허용안해”

미국과 중국 정상이 2개월 후의 미국 정권교체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상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1시간4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각각 중국의 대북·대러 영향력 행사와 중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를 강조했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는 일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적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제이크 쉐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협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쉐리번 보좌관은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允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중앙TV(CCTV) 등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결국 두 정상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도발 또는 추가 핵실험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조

한 반면 시 주석은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시 주석은 북한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 압박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배치 강화는 중국의 안보이익 침해로 간주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한편,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은 이번이 3번째이며,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악관 연설을 넘기고 물러나게 됨에 따라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발탁...역대 최연소

1기 때 대변인실 근무 후 하원 출마...대선캠프 대변인 맡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출범할 2기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으로 대선 캠프 내신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27·사진)을 발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캐롤라인 레빗은 나의 역사적인 선거운동에서 내신 대변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캐롤라인은 똑똑하고 강인하며, 고도로 유능한 소통 전문가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녀가 대변인 연단을 나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미국 국민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 만든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레빗은 발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믿어줘서 감사하고 영광”이라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적었다.

1997년생인 레빗은 올해 27세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다.

지금까지 백악관 대변인 중 최연소는 리처드 니슨 대통령 재임 때의 론 지글러로, 그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나이는 29세였다.

집권 2기 ‘트럼프의 입’ 역할을 맡게 된 레빗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내신 대변인을 맡아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를 강하게 몰아붙여 왔다. 그는 1기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에 ‘대변인보’로 일하며 백악관 공보팀 일원으로 몸담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백악관을 나온 그는

트럼프 측근 의원이자 최근 유엔 대사로 지명된 엘리사 스테파니 하원의원의 공보국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2022년 중간선거 때 연방 하원의원(뉴햄프셔주)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현역의원에 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시절 소프트웨어 선수로도 뛰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백악관 대인론 전략을 총괄하는 공보국장에게 대선 캠프 수석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청을 기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전략 대응국장을 지낸 청은 2013년엔 종합격투기 UFC의 홍보 담당으로 일한 이력이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각종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거친 스타일로도 유명하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언론을 상대하는 방식이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논쟁적일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대선 개표부정 시위자 70명 ‘눈물 속 석방’

“1천700여명 여전히 구금 중”

베네수엘라에서 7·28 대선 개표 불공정 항의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70명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석방됐다. (사진)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포로페날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이른 오전 전국 4곳의 교도소에 있던 정치사범 중 최소 70명이 자유를 되찾았다”는 글과 함께, 이들 중 일부의 석방 모습을 담은 동영상



를 게시했다. 한 교도소 밖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환호와 눈물 속에 가족 등과 헤어지는 출소자의 모습이 담겼다. AP통신은 혼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2명이 부축해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현지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이번 대선을 통해 3선 연임을 확정받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에 “(수감자 중) 절차적 오류로 구금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검찰은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시위하다 붙잡힌 이들의 사건 중 225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로페날 집계에 따르면 대선 이틀날인 7월29일 이후 지난 8일 까지 청소년 69명을 포함해 1천888명이 수감됐다. 이번엔 70명을 빼도 1천700명이 넘는다. 마두로 집권 기간인 2014년부터 따지면 1만7천952명이 정치적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가장 큰 규모라고 포로페날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 확인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감염 환자가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최근 동부 아프리카를 다녀온 캘리포니아주 거주자가 변종 엠폭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염자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격리된 상태이며, 주 보건 당국은 그와 접촉한 사람들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 크 골 프
무 료 레 스

오시는 길
무등경기장, 현대자동차 구, 전일상사, 신세계백화점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